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8. 10.(목)

## 열차 궤도이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시설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2.11월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발표와 연계, 후속조치 추진
- 분기레일 전수점검, 유지관리 지침 개선 및 장비확대를 통해 재발방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작년 11월 6일 발생한 경부선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궤도이탈(탈선) 사고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8월 10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지점은 일반선이지만 고속열차가 경유하는 구간으로서 운행횟수와 통과톤수가 많아 레일 표면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이 사고 기여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분기기에 대해서도 본선 레일에 준하는 수준의 점검과 보수 관리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 사고 이후, 즉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22.11.9~'22.12.30)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를 선행하였다.
  - 먼저, 직접적 사고원인인 '분기기의 텅레일(방향 전환 레일)'에 대한 진단을 위해 전국 모든 분기레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22.11월~'23.2월)하여, 위험레일을 교체하였고, 보완작업(연마, 용접 등)을 지속 진행 중이다.
  - 또한, '선로유지관리지침'을 개정('23.5월)하여 분기기에 대한 초음파 탐상을 의무화하고, 분기기 점검·교체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추가로 전반적인 선로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고속선에만 적용하던 레일 표면결함 보수 및 교체기준을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요 일반선\*은 초음파 탐상주기(기존 1회/연 → 2회/연) 확대 및 레일연마를 의무화하였다.

\*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50% 이상 또는 설계속도가 200km/h 이상인 일반선

- 이에 더해 강화된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유지보수장비 도입도 대폭 확대\*하고,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행 조치 하지 않은 권고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레일연마차 2대(~'26), 인력 레일연마기 18대(~'24), 초음파탐상차 2대(~'26), 초음파검사장비 15대(~'23)

-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고 6일 전 시행되었던 정밀점검과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서 관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조위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기레일 등 선로 취약부위를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개선 권고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여 유사사고를 방지”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성균 (044-201-4600)
		담당자	사무관	이채훈 (044-201-4603)
담당 부서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박희민 (044-201-4623)
		담당자	서기관	오한영 (044-201-4624)

